

특 집 정치생태학으로의 초대

생태민주주의 담론 내 생태여성적 정치논의의 지형 그리기

문순홍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 물 연구소 소장

21세기로 가는 지난 20년 동안은 시대 구분을 위한 논의들로 뒤범벅이 되었다. 일례로 패러다임 변동론이 인자에 회자됐고,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이 뜨거웠다. 용어가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현 세계의 사회들이 전반인 변동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우리는 세계화로 IMF로 체감하고 있다. 이 변동은 현재 신자유주의란 우산 밑에 모여 있는 집단들과 자의식화된 민(民)들의 집단적 자활 활동이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다.¹⁾ 후자의 움직임은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를 하버마스(Habermas, 1992)는 ‘공적인 영역의 재부흥’으로, 기든스(1998)는 ‘제3의 길’로, 울리히 벡(1993)은 ‘정치의 재발견’으로 함축해냈다.

‘정치의 재발견’은 개인들이 공적인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것을 풀기 위해 사적인 영역으로 정치를 끌고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필립 슈미터(Schmitter, 1995)는 1970년대 후반 이후를 민주주의의 3차 물결이 시작한 시기로 분석하였고, 정치·사회학자들은 1990년대를 민주주의 논의의

1) 이를 필자는 세계화의 수직축과 수평축이라 표현하였다. 문순홍(1995a)을 참조.

르네상스기라 칭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민주주의 논의의 재활성화가 만일 ‘환경’·여성·소수인종 및 민족·대안실험의 이슈로 구성된 녹색의 사회문제군과 이를 사회에 드러낸 신사회운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재부흥된 대안민주주의 논의의 결과물이 생태적인 관점과 여성적인 관점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면, 대안민주주의 논의는 풍성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민주주의 논의의 변형을 시도하는 담론의 장에서 생태여성론의 정치논의가 놓여질 수 있는 위치를 평가해보고, 두 논의 모두를 풍요롭게 할 소통 루트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선 생태여성론이 개관될 것이다. 2장에선 생태정치론의 전개과정을 기술하고, 생태민주주의 논의의 특성을 분석해볼 것이다. 3장에선 생태여성론의 정치담론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4장에선 생태여성적 정치논의가 생태민주주의 논의로 가는 길목을 닦는 데 주는 함의를 제시해볼 것이다.

1. 정치화를 향한 생태여성론의 전개과정

환경 혹은 생태계²⁾가 인간에 의해 지배·억압·착취받는 것과 여성이 남성에 의해 지배·억압·착취받는 것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이론 및 운동(Mellor, 1997: 1, 7; Plumwood, 1990: 10; Rae, 1994: 23-24; Rocheleau·Thomas-Slayter·Wangari, 1996; Warren, 1994: 1-2)으로 정의되는 생태여성론은 1974년 프랑스의 프랑수아 드본느의 저서 『여성해방인가 아니면 죽음인가』(1974)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2) 환경 혹은 생태계란 용어는 인간 이외의 자연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은 인간과 환경 및 생태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필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혹은 재난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이 들어갈 경우엔, “생태(적)” 혹은 “생명”이란 용어를 쓴다.

이후 생태여성론의 이론적 논의는 제2의 여성해방 물결이 최전성기에 달했던 1970년대말경부터 본격화되고, 1990년대를 넘어선 현재 생태여성론은 몇 가지 흐름으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 분화과정에서 생태담론에서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생태여성론을 급진여성해방론과 근본생태론이 접합한 문화적 생태여성론, 사회생태론과 시몬느 보바르의 논의가 결합한 사회적 생태여성론(생태여성론의 정치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여성론과 생태사회주의가 접합한 사회주의적 생태여성론으로 유형화한 바 있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급진 페미니즘이 자유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였듯이, 이 논의도 초기 자유주의의 본질주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 이런 경향은 여성과 자연 간 상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여성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본질론과 실재론 간의 논쟁이란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부터 영향을 받은 집단들이다. 이 집단들, 즉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이라 불리는 집단들은 자신의 작업, 즉 “여성과 자연에 귀속된 속성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사회적 구성물, 즉 남성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임”을 밝히는 데 작업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작업을 통해 담론들—그것이 지배적인 담론이든 대항담론이든—이 분석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감추어져 있던 권력관계가 다중적임을 드러내주었다. 이 드러냄의 과정을 통해 생태여성론은 시민사회의 녹색의 공적 영역에 죽어 있던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려 내는 데, 또한 여성들이 일궈낸 공적 영역에 자연의 목소리를 끌어들이는 데 일조하였다. 이로써 문화정치로서의 생태여성적인 정치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생태여성론의 정치논의는 한 발자국을 더 내닫게 된다. 그 기폭제는 “생태여성론에 정치논의가 없다”는 자넷 빌(Janet Biehl, 1991)의 지적이었다. 물론 그녀는 정치적인 관심, 이로부터 나온 전략과 이론적인 논의가 없음을 이유로 생태여성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지적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문화구성적 생태여성

론은 이미 문화정치라는 영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의 지적을 통해 생태여성론은 제도정치의 변형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전개되는 생태여성론의 정치논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태민주주의 담론의 영역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2. 생태민주주의 담론의 영역들

1) 생태정치론 내 두 가지 긴장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전개된 이른바 녹색적인 사유와 이의 정치적인 측면인 생태정치론에는 두 가지 긴장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 긴장은 중앙집중형 생태권위주의를 지향하는 논의와 생태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논의가 빚어내는 긴장이다. 그 두 번째 긴장은 ‘정치적인 것’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입장과 현실정치체제와 그 도구들을 활용하려는 입장 사이의 긴장이다. 전자의 긴장이 ‘민주주의와 환경’이란 준거틀 내에서 진행되었다면, 후자의 긴장은 주로 사회생태론과 생태사회주의 사이의 논쟁에 터하고 생태근대화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긴장들을 중심으로 생태정치론은 세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1970년대초로 녹색 정치이론 내 민주주의 이론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녹색논의는 한편으로 하딘(G. Hardin, 1968), 오프츠(Opuls, 1977), 그리고 하일브로너(Heibroner, 1974) 등과 같은 생태권위주의적 정치체와 높은 친화성을 가진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철학과 자연과학에 논의를 집중하는 정치적 무관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70년대말로 소규모 연방제 직접민주주의가 예찬되던 시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론으로서의 녹색정치이론은 1970년대 말경부터 등장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시기 생태정치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치체제의 특징이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이론으로부터 ‘강한 민주주의’ 유형에 관한 이론(Baber, 1984)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녹색운동과 녹색당 진영에서 선호되던 정책결정의 틀과 원칙들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생태정치론은 정치와 권력을 재개념화하고 자치민주주의론과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을 보다 많이 참여케 하려는 논의로 나누어진다.

1980년대 후반 혹은 1990년대 초반경에는, 생태정치론이 자유민주주의를 대체·보완·급진화하려는 대안민주주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이 시기가 세 번째 단계로, 특히 이전 단계에서 양분화되어 있던 논의가 대안민주주의 논의³⁾ 중 특히 협의민주주의론 및 결사체 민주주의론과의 논쟁을 통해 생태민주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2) 정치에 대한 생태적인 정의 시도

생태담론의 초기 논의는 패러다임 전환론이었다. 제2단계로 진입하던 시기, 생태논의는 유토피아적인 정치체제 그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 정치에 대한 재정의 시도는 사회생태론과 생태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자의 논의가 주로 통치로 전략한 정치, 통치가로 전략한 정치를 역사적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정치에 대한 개념을 논구하는 데 집중되었다면, 후자의 논의는 시민사회 내 새로운 정치영역으로서의 생태운동(신사회운동) 분석과 새로운 국가분석의 필요성 주장에 맞추어져 있었다.⁴⁾

이 생태정치에 대한 정의는 ‘생태적’ 혹은 ‘생태중심적’을 어떻게 해석

3) 이 대안민주주의 논의는 급진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 담화민주주의 등의 몇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이외에도 소통적 민주주의(Young, 1990), 대화민주주의(Giddens, 1994), 담화민주주의(Dryzek, 1990) 등이 있다.

4)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줄저,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179-254쪽을 참조하라. 여기에서 필자는 생태정치 논의에 국가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는가에 달려 있다. 생태적이란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태정치는 그동안 인간중심적 세계에서 배제되었던 생태적인 가치에 우선순위에 부여하는 인간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정치를 생태화한다는 것은 우선 정치의 내용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보다 민감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환경적인 해악(공해)의 공정한 배분에 관여함을 칭하며, 세 번째로 정치의 내용이 덜 인간중심적으로 된다가나 아니면 더 생물중심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정치생태학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함의이다.

특히 세 번째 함의와 관련해서 생태적인 정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최소주의적인 관점으로 생태정치가 윤리의 수준으로 전락함으로써 정치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은 최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서 창조된 본래적인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정치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인 권력의지(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

3) 생태민주주의로 가는 길 1: 자유민주주의 비판 및 보완

대안민주주의로서의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성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제도변화 없이 도달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Acherberg, 1996).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지만, 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환경이슈 해결에서 제한적이라는 주장에는 의견들이 일치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점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어떤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생태적인 정치담론의 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

(1) ‘환경’문제해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 및 한계점

생태정치론의 친환경적 정치제도에 대한 물음은 자유민주주의란 틀 속에 가지고 있는 생태위기의 극복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그 출발점으로 삼

고 있다. 생태담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 생태론은 태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친화성이 있다는 견해(diZerega, 1996); 자유주의 내부로부터의 연속적으로 지양할 수 있다는 견해; 생태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의 단절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견해(머레이 복친을 필두로 한 사회생태론자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태담론의 일반적 입장은 두 번째 견해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장점으로 대중저항의 형태로부터 녹색당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시민들의 활동·참여를 통해 스스로를 강화해가는 자기혁신과정이 지적될 수 있다(Eckersly, 1996a). 반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환경이슈의 해결에서 보여주는 한계는 그 작동방식상의 한계(Dryzek, 1996a; Eckersly, 1996a)(사후적인 반응과 정치체제의 부의 피드백 작용의 결여),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인간중심 윤리(Mathews, 1996; Plumwood, 1996), 생태도덕과 생태친화적인 구조로서의 부적합성(행위자들간의 자율적 조정능력 결여, 변화에 대처하는 체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의 결여)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2) 자유민주주의의 보완: 잠재적 유권자층을 정치권에 대변시키는 길

다음으로 생태담론은 자유민주주의의 잠정적 보완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자신의 한 영역으로 삼고 있다. 예로, 돕슨(Dobson, 1996)은 자유민주주의의 작동방식상의 결함과 그 구조상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기준으로 어떤 층이 대변되어왔고, 생태문제 틀 하에서 어떤 층이 대변되는가라는 물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그 이해관계의 정치대변을 인간, 현세대 그리고 국민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생태문제 틀을 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틀을 활용하는 최소한의 길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유권자층을 이 체제 내

로 대변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다. ① 외국민의 이익대변; ② 미래세대의 이익대변; ③ 인간이 아닌 자연집단.

4) 생태민주주의로 가는 길 2: 생태민주화 전략

위에서 제기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두 번째 입장 중 보완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생태민주주의의 영토로 들어가보자는 논의가 생태민주화 전략이라 불릴 수 있다.⁵⁾ 이 생태민주화 전략에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마테유(Mathews, 1996), 라퍼티와 미도크로프트(Lafferty & Meadowcroft, 1996) 그리고 도어티와 제우스(Doherty & Geus, 1996)가 편집한 책에 참여한 학자의 다수, 특히 드라이젝(Dryzek, 1996b)과 엑커슬리(Eckersly, 1996b)—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전략은 두 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녹색국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의 공적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녹색의 공적 영역 창출은 다시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순수하게 녹색의 공적 영역을 창출하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의 순환루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이를 생태근대화 전략이라 부른다.⁶⁾ 그러나 여기에서는 생태근대화 전략은 생략한다.

(1) 녹색 공적 영역의 활성화

이 전략은 자유주의 국가 및 그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생태가치와 민주화를 위한 전략적인 요체로 국가보다는 시민사회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의 공적 영역이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잠정적인 정의만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의 정치단위에서 공통의 관심사항들 중 하나인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비판하고 교환하며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

5) 제우스는 이 생태민주화 전략을 생태적인 재구조화 전략이라 부른다(Geus, 1996).

6) 이 생태근대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이와 관련해선 문순홍(1995b)을 참조하라.

치적인 공론의 장”이다. 이런 녹색 공적 영역을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비조직화된 형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안민주주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정확히 말해, 생태담론이 적극적으로 이들 논의로부터 수혈을 받고자 시도했다는 평가가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민주주의와 대안민주주의 논의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폴 허르스트(Hirst, 1995)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결사체 민주주의는 이른바 정치적인 결정의 힘을 이차집단들(정확히 말해 이 논의는 사회·시민단체들을 일차집단으로 국가를 이차집단으로 부른다)로 이전시킴으로써, 준(semi)공적인 영역을 시민사회 내에 창출하여 현 복지국가의 서비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방만한 기구와 재정을 축소하는 것에 그 논의의 핵심이 있다. 이 시민사회 내 이차집단들은 소득의 재배분 물음〔기본 소득개념은 고르(A. Gorz), 라일(M. Ryle) 등의 생태사회주의 개념의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조직화되지 않은 준공적인 기능을 창출하는 것, 시장을 협력적으로 통제하는 것, 그리고 권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시민사회의 권위체를 형성하는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결사체 민주주의에 터한 생태민주화 전략⁷⁾은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국가의 과제를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대 정치단위였던 국가를 기능적인 단위로 세분화시켜 공공영역을 유동적으로 창출하는 데 유의미성을 지닌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생태이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공정한 공적 결정과정의 창출과 자율적인 시민참여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협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환경문제해결에 보다 적합하다는 합의가 있다. 여기에서 협의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율을 이념으로 하고 설득을 권력의 주요 유형으로

7) 이 결사체 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결합 가능성은 주로 아흐터베르그(Achterberg, 1996)에 의해 논구되고 있다.

파악하는 시민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시민지배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결정을 숙고하도록 격려하는 수단이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 핵심이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성에 있는 민주주의 유형이다.”

이 협의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① 이 모델이 개개인들을 행동하는 시민으로 준비시켜줄 수 있다; ② 협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적 선호도를 일반적인 가치로 변형시킬 것이다; ③ 일종의 신뢰체제로, 공적인 영역에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수익자들에 대해 시민들이 인간들의 신탁적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Eckersly, 1996b). 그러나 이 협의민주주의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이해관계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정책결정의 기본규칙들을 재구조화하려는 시도들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주장에만 특권을 부여하고 다른 종류의 목소리 특히 인간 외적인 존재들간의 의사소통은 배제된다 (Dryzek, 1996a).

(2) 녹색국가에 대한 논의

환경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그 전제로 “규범을 만들고 부과하며 효과적으로 이를 수행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적인 정치담론은 녹색국가의 영역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다. 이 녹색국가에 관한 한, 생태담론 내에는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국가유형이 존재한다. 그 하나의 유형은 절대국가 등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생태권위주의형 국가 모델이다. 이것은 1970년대의 이야기로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다른 유형은 1990년대 민주주의 부흥기에서 녹색론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국가로, 절대주의국가 유형이 아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강력한 국가⁸⁾를 의미한다. 이런 국가는 생태민주

8) 이를 제우스는 자유로 지향된 망원경적 생태국가(Freedom-oriented telescopic strong ecostate)라 명명하였다(Geuss, 1996: 209).

화 전략과 공존하는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최소주의의적 국가유형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 이 녹색국가란 개념에 대한 논의는 그리 명료하지 않다.

3. 생태여성적 정치논의의 영역들

생태여성론에는 극히 소수의 학자나 실천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논의의 연륜도 짧다. 그래서 논의의 폭과 깊이가 그리 깊지 않고, 초점을 좁힐 경우 많은 내용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한계 속에서 생태여성론의 정치담론은 문화정치의 영역,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자연과 인간을 전제로 한 생태담론 및 가부장제를 억압의 원천으로 전제한 급진적인 여성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영역으로 확장되어왔다.

1) 문화정치⁹⁾ 1: 지배담론의 다중적 ‘배제과정’ 드러내기

1장에서 거론했듯이, 생태여성론은 몇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9) 문화정치는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운동은 생태적 고려에 매개된 문화정치를 실행한다. 문화정치를 통해, 이 운동은 개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종다양성 네트워크 내 분명 다른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Escobar, 1998: 60). 사회운동이론가들은 최근 문화정치개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문화정치는 상이한 문화 의미와 실천에 의해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일련의 사회행위자들이 서로 갈등할 때 작동하는 과정이다. 문화정치에 대한 이런 정의는 “의미와 실천들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과정’의 원천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의미들이,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사회권력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에 문화는 정치적이다. 운동이 여성/자연/발전/경제/민주주의/시민권에 대한 대안적 개념—지배적인 문화의 의미를 해체하는 개념—을 전개할 때, 운동은 문화정치를 실행한다. 문화정치는 현존하는 문화적 실천들에서 기원하는 discursive articulations의 결과이다. 이런 과정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이런 과정들은 항상 지배적인 문화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대조를 보여주는 혼합물이다(Escobar, 1998: 62).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영역이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¹⁰⁾이다. 이들은 그 논의의 초점을 “여성성과 자연의 본성이 같음”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이 다루려고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왜 이 사회에서 여성성과 자연성이 주어진 것 혹은 고정된 것으로만 생각하는가? 왜 여성과 자연의 본성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열등한 존재로 말이다.

이 논의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발 플럼우드(Val Plumwood, 1992; 1994; 1997)는 이런 동일성 주장을 서구문화의 지적 편견이라 단정한다. “서구문화에서 여성이 지배당하는 지적인 근거들 중 하나는 남성성을 합리성 영역과 동일시하고, 반면 여성성은 자연영역과 동일시하는 서구적인 이성개념이다”(Ibid, 1992: 8). 이런 등식은 사회영역의 분할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그래서 “공적인 삶, 생산, 사회문화적인 삶, 그리고 정의와 같은 합리적인 남성의 영역은 사적, 가정적, 그리고 재생산적 삶이란 여성의 영역과 대조적으로 구분되어왔다”(op. cit.).

이 이원화된 합리성의 세계에서 여성과 자연은 항상 열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왔으므로, 여성과 자연이 억압에서 해방된 사회에 도달하는 길은 가치체계와 문화 속에 감추어진 위계구조와 권력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의 전략을 필자는 문화정치적인 전략이라 부른다. 생태여성론의 이 문화정치적인 전략은 탈근대의 시대를 특징짓는 새로운 정치전략¹¹⁾이다. 필자는 문화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인 국부현상들(아문화)¹²⁾을 드러내며, 이들의 차이를 밝히고, 이 차별성의 숨김과 드러냄 속

10) 문화구성적 생태여성론과 관련해서는 문순홍(1997)을 참조하라.

11) 이러한 전략은 생태여성론의 독자적인 전략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의 시대 사조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주의 혹은 문화연구의 강화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12) 여기에서 아문화란(subculture)란 영국에서 청년층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아문화는 ‘청년층’이 하나의 사회집단을 이룬다는 사실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이들의 생활이 나타내는 사회적·경험적 깊이와 스타일에서 일관성이 별개의 생활양식이라 지칭될 만큼 충

에 감추어진 정치적 함의를 드러내는 것, 나아가 공적인 영역에 이 차이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문화정치는 차이의 정치 혹은 문화다원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하튼 생태여성론의 문화정치적 전략은 지배적인 세계관—이원론적·위계적·중심적·지배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성성과 자연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전자의 전략은 물론 생태담론의 생태비평전략이나 페미니즘의 비평전략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생태여성론의 독특성은 그 이분화된 축의 다원성을 드러내 보여줌에 놓여 있다. 우선, 이들의 작업은 이른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불리는 ‘것들’에 어떻게 남성중심성과 강한 인간중심성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밝혀내고 나아가 ‘열등한 것으로 가정된’ 여성성과 자연성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배제되는가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태여성론의 문화정치적 전략에는 과학적 인식론과 방법론의 인간·남성중심성 드러내기, 특정 과학개념의 비중립성 분석하기, 그리고 생명과학기술과 같은 특정 과학기술의 성역압성 밝히기 등이 있다(문순홍, 1997 참조). 구체적인 사례로 이곳에서는 머찬트와 플럼우드의 작업을 제시해보자! 우선 머찬트의 작업은 여성화된 자연이란 담론 분석과 그런 자연의 해방을 지향해왔다. 1980년 『자연의 죽음』에서 그녀는 여성과 자연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가 허용되는 윤리적 억압기제가 형성되는 역사과정(특히 17세기 상업적 자본주의와 과학혁명이 등장·확산되는 과정과 자연의 재개념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후 1989년의 『생태혁명』에서는 뉴잉글랜드지역이 유럽의 상업적 자본주의와 식민주의 과정에 노출되면서 어떻게 물신론적이고 유기적인 미국 원주민 문화가 서구형 문화로 바뀌어가고, 여성의 역할이 변형되는가를 분석하였다. 1995년 발표된 『지구 보살핌』에서는 개별 문명권에서 나타난 자연의 여성적 상징들—가이아(그리스 문명), 이브(기독교 문명), 그리고

분히 독특함을 의미한다(문옥표, 1995: 56). 따라서 이문화는 고급문화에 대비되는 하위문화를 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시스(이집트 문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의 뒷에 걸린 자연을 ‘실재하며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과정’으로 되살려낸다.

또 다른 문화구성적 여성론자인 플럼우드도 이와 유사한 작업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녀는 1993년 『페미니즘과 자연의 지배』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억압축을 자연과 여성에서 다른 억압받는 타자들로 확장시켜주었고, 이런 억압과 관련된 이성중심의 이원론적 환원주의를 호주 타스매니아지역의 고래잡이 및 바다표범잡이 산업의 역사, 죄수들의 감옥체계, 원주민 파괴사, 그리고 호주의 합병사가 엮히는 과정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Plumwood, 1994).

2) 문화정치 2: 대항담론 내부의 권력관계 밝히기

이제까지 기술한 것이 여성, 자연, 그리고 원주민을 ‘주체’로부터 배제하고 그래서 타자란 지위로 강등시킨 서구·백인·남성·성인중심적 문화담론들을 분석하는 정치전략이었다면, 생태여성론은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대항담론 내에 감추어졌거나 혹은 눈치채지 못한 남성중심적 권력관계를 드러내줌으로써, 이들 담론이 여성적인 색채로 보완되도록 해주었다. 대안 생태여성론과 담론들 간의 논쟁에는 생태론과 더불어 급진여성론에 대한 비판도 들어 있지만,¹³⁾ 여기에선 전자와의 논쟁만을 기술하고, 후자와의 논쟁은 차후의 시점으로 미루고자 한다.

생태정치에 대한 생태여성론의 공통된 불만은 “비록 생태론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들보다도 페미니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생태위기 창출에서 성별 불평등이 근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Mellor, 1997: 2)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거리설정은 주로 근본생태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생태론에 대한 생태여성론의 비판을 살펴보자. 이 비판에는 몇몇

13)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Braidotti et al.(1994: Ch. 4) 그리고 Mellor(1997: Ch. 4)를 참조하라.

학자(Salleh, 1995; Slicer, 1995)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근본생태론이 가지고 있는 생태여성론에 대해 본래적인 적대성은 전체 체제를 보는 눈의 단순성과 인간 ‘자아’를 보는 눈의 추상성에서 나온다. 이런 적대성을 아리엘 살레(Salleh, *Ibid*)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과 자연 간 분열을 극복하면 자동적으로 여성소외를 포함한 인간소외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착취체제, 특히 가부장제적인 착취체제를 보는 데 실패하였다. 둘째, 생물평등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여성들을 성적·재생산적 노동의 복합자원으로 취급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다. 셋째, 자연과 인간적 자아를 다시 동일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길로 명상과 여가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주로 노출되어 있는 생활상의 기본 필요와 생존이란 현실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적이고 백인 중상층 남성들의 이데올로기이다. 넷째, 근본생태론의 텍스트에는 성의 정치에 대한 무지와 침묵이 깔려 있다.

이 비판적 거리설정에는 타협 불가능성과 상호보완 가능성이란 두 가지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위에서 인용한 학자들은 생태정치와의 타협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지만, 여하튼 생태적인 정치담론이 무의식적으로 소홀히 해온 성차별적인 색채를 지적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논쟁이다.

3) 정치생태학을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하기!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국가와 경제의 구분(이분법적 사회관에서) 혹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삼분법적 사회관에서)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정치가 “있어야 할 영역”은 국가나 공적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급진페미니즘의 정치는 바로 이 공사 이분법을 비판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공론해 볼 필요가 있는 물음으로 전환시켰다.¹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생태정치

논의는 생태민주화 전략, 녹색국가, 녹색의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활발히 확장되어왔지만, 정치논의를 공적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으로 확장시키지는 않았다. 정확히 공사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여성론은 페미니즘의 물음인 “공·사 구분의 물음”을 정치생태학에 끌어들여와, 그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해주었다. 정치생태학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공동선(복지)’을 정치적인 구성원들(시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물음을 다루었다면, 이제 정치생태학은 ‘공공약(공혜)’을 시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물음을 다루는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생태적인 원리에 따라 새로운 정치제도를 추구하는 영역이다. 이 두 축에 따라 정치생태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구성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공동약’의 배분에 성차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출함에 있어 “여성적인 원리”와 “여성성”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여성성”, “여성적 원리”는 곧 “생태적인 속성”, “생태적인 원리”를 의미한다(Shiva, 1986). 생태여성론적 정치논의는 이 두 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태여성론은 공·사 구분을 근거로 정치와 경제에의 불평등한 참여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어원적으로 밝힌다. 이로써 급진페미니즘이 새로운 여성정치의 가능성으로 가정 또는 재생산영역에 주목(가정의 사회화, 사회의 가정화)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런 시도는 빌(Biehl, 1991)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녀의 생태여성론 비판이란 의도와는 다르다. 어원적으로 Ecology는 Oikos에서 비롯된다. 이의 뜻은 가계를 돌본다는 것으로 경제의 어원이기도 하고, 나아가 정치는 이 가계의 분배관리라는 함의를 수용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즉 가정영역은 역사적으로 현재와 같은 팔기 위한 상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교환되는 경제영역 등장의 모체였다. 사회 전체를 돌보고

14) 특히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근거인 공사 이분법 비판과 여성배제 비판은 Okin(1979)과 Pateman(1988; 1992)을 참조하라.

관리하는 정치영역인 폴리스(polis) 등장의 모체이기도 하였다.

둘째, 생태론은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자아에 대한 선언적 주장은 하였지만, 1980년대말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¹⁵⁾ 생태여성론은 이 새로운 자아의 발견과 이로의 변형이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어줌을 이룬 시기에 주장하였다(Kelly, 1984; Diamond, 1992). 물론 생태담론이 1990년 이후 새로운 자아를 ‘관계적 자아’(Naess, 1987; Mathew, 1996)와 변증법적 이성의 소유자로 정의하는 데 비하여, 생태여성론이 말하는 새로운 여성의 자아는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로서의 상이다. 이런 이미지는 생태담론보다 더 정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생태여성론의 권력과 정치화 개념은 이미 기존개념을 넘어서는 것(Rae, 1993: 13-15; Braidotti et al., 1994: 81, 118)이다. 기존권력 개념은 욕구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권력은 “타인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힘”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여성의 권력획득은 남성의 권력상실”로 연결되었다. 반면 생태여성론은 긍정적인 개념, 즉 ‘무엇을 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는 지배형 권력(Power-over power)”이 아니라(Starhawk, 1987), “내적인 힘(power within)”(Diamond, 1992: 374)에 강조점을 둔다.¹⁶⁾

넷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개념도 기존의 부정적 개념인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가하는 행위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일면에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Biehl,

15) 이와 관련해서 녹색적 사유의 정치철학적 과제가 인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 필자의 저서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1992)을 참조하라.

16) 이와 관련 카렌 워렌은 권력유형을 다섯 가지—지배형 권력, 연대성 권력(power with power), 삶의 자기관리로서 내재형 권력(power within power), 지향형 권력(power-toward power), 그리고 대항형 권력(power-against power)—로 나누고, 특히 지배형 권력이 가부장제의 전형이라고 말한다(Karren, 1994: 181-183).

1991: 150)으로 정의한다. 물론 이러한 정의가 생태정치담론과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을 여성 자신의 육체에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육체는 자연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는 일차적인 장소이고,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세력들이 서로 만나는 구조물이다. 따라서 육체를 자연과 성 관계를 결정하는 권력의 장소로 이해하는 생태여성론은 개개인을 정치의 주체로 세력화하는 두 논의, 즉 생태담론과 여성담론을 결합시켜낼 수 있다.

다섯째, 따라서 육체의 정치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조건들에 여성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다양한 출신배경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을 표출해낼 수 있다. 이런 다중심적 저항 전략은 급진여성론의 전제와 같다. 그러나 생태여성론은 이런 다양한 억압과 지배를 서구의 남성중심의 세계관이란 공동의 이데올로기에 묶음으로써 다양한 저항들이 서로 짜여지는 네트워크(연대망)를 강조한다(Plumwood, 1994; Warren, 1994; Braidotti, 1994).

여섯째, 생태여성론은 기존의 제도정치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자원과 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하는가, 그리고 누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정의하는가라는 물음을 다룬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태여성론은 자원과 환경에 접근하고 이를 통제하는 권리에 남녀간 차별이 나타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이를 관리하고 치유할 책임성에도 차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작업의 실례로, 어떻게 자원보유와 관련된 법률상의 구분—성문법적인 권리와 관습법적인 권리—이 성차와 관련되는가, 관습권에 국한시킬 경우에 통제에 대한 권리(소유권)와 사용에 대한 권리(사용권)도 사회적인 성차별과 유사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의 물음으로첼로, 토마스와 쉬레이터 그리고 왕가리 등이 다루었다(Rochelor et al., 1996).

일곱째, 환경정책의 성차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품일생주기 분석을 통해 폐기물(쓰레기) 처리에 초점을 맞춘 환경정책이 감

추고 있는 무불노동으로서의 여성노동력의 착취를 밝혀낸 작업이 있다 (Schulz, 1993). 이런 여성에 대한 과부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 관련 책자들에 소개된 실천방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Instone, 1992).

4. 대안민주주의의 논의로 가는 길목에서: 생태여성론의 기여와 한계

약 25년 논의의 역사를 지닌 생태적인 사유와 약 20년 논의의 역사를 지닌 생태여성적인 사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적하는 이론과 실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구 패러다임이 드러낸 위기—이 위기는 성정체성의 위기를 포함하여 여러 아(sub)위기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필자는 이 중 생태위기가 가장 큰 범주라고 생각한다—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안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이론과 실천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실 그동안 민주주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주체가 양적으로 확산되고 그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질도 고양되어온 역사였다(Dryzek, 1997; Nash, 1989).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생태여성론의 정치적인 논구는 생태적인 정치논의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고,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1994년 데이브 헬드(David Held)는 자신의 책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에서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물결은 국가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민주화로 이루어진 이중과정이라고 정의하고, 후자에 민주주의 논의의 새로운 특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안민주주의 논의에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공통의 관심은 이른바 다양한 ‘타자’들을 어떻게 ‘공적 영역’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놓여 있다. 생태여성론은 이 다양한 타자들이 배제되어온 공동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유의

미한 논의 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 플럼우드, 캐롤린 머찬트 그리고 마리 멜러와 같은 학자들은 생태여성론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이론으로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들은 이런 ‘배제된 집단군’에 자연, 여성을 넘어서 모든 다른 인간집단들도 포함시킨다. “자연과 여성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는 것은 단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란 위계구조에 의해 지지되는 것만이 아니다. 나아가 자연과 동일시되는 여러 인간집단들의 열등화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보다 동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흑인의 열등성… ‘문명화되지 않은’ 혹은 ‘원시’ 문화의 열등성을 정당화해준다”(Val Plumwood, 1994: 75).

(2) 생태여성론은 생태정치론에서 무의식적으로 소홀히 한 성차별적 색채를 지적해주었다. 이 글에서 지적하진 않았지만, 녹색당이나 생태운동 내에 잠재화되어 있던 남성중심성-남성적 조직원리, 남성우선적 조직구성-도 생태여성론자들에 의해 지적된 사례가 있다. 필자는 생태여성론이 생태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듯이, 생태론에도 이런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생태담론은 여러 가지 ‘여성적인 특성들’-예로 여성적 말하기 방식 등-도 배려되는 생태민주주의 틀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생활정치(안토니 기든스의 용어), 그리고 기든스의 아정치 등의 용어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주조된 것이다. 그러나 생태민주주의 논의는 여전히 공적인 영역이란 논의 틀에 잡혀 있다. 생태여성론이 검토한 가정, 경제, 정치가 도출된 출처로서의 Oikos(가계를 돌봄, 생태계)는 생태민주주의에 “공적인 영역에 기반한 정치결정과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제 생태여성론의 한계를 지적해보자. 이 한계는 이론의 정치(精緻)함 결여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페미니즘이란 개념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좋은 예로 ‘힘을 가진 자’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는 생태여성론만의 독특성을 구성해주지 못함은 물론, 여성성의 한 특성으로 말하고 있는 ‘보살핌’ 등과 연결지어 논의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1)에서 지적하였듯이, 생태여성론이 다면적 형상을 한 이원론적 억압구조에서 여러 유형의 억압축을 열어주고, 다양한 저항유형 사이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힘을 가진 자’로서의 여성성 강조는 충분한 출발점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불충분성은 생태론의 ‘관계적 자아’로서의 보편적 인간관 재정립 그리고 페미니즘의 ‘보살핌의 사회화’와 연관지어 논의될 때 극복될 수 있다.

후자의 한계성은 대안정치론을 구상할 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말해, 세계관은 현세계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것, 이 문제의 원인을 과거로부터 추적하는 것, 그리고 대안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상(像)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이 세계관들은 대안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이념들을 그 개념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예로 민족주의는 민족을, 자유주의는 자유를, 자본주의는 자본을... 그런데 이 생태여성론은 이미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의 공존’이란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자연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과 생태계의 공존’이란 목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태여성론의 전망은 “미래사회로 가는 전략적인 논의”와 “대안 미래사회에 대한 그림으로서의 논의”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동안 생태여성론은 주로 첫 번째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참고문헌

- 문순홍. 1992,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 _____. 1995a, 『세계화와 지방화, 그 함수관계 및 지방환경의제의 변형』, 《환경과 생명》 6호.
- _____. (편역). 1995b,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나라사랑.
- _____. 1997, 『생명가치와 생태여성론』, 환경정책연구원 보고서 『생명가치의 학제간 연구』, 환경정책연구원.
- 문옥표. 1995, 『인류학, 현대문화분석, 한국학』, 『한국의 사회와 문화 23집: 문화이론의 쟁점과 한국사회』, 정신문화연구원.
- 앤소니 기든스. 1998,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김현옥 옮김), 한울.
- _____. 1998, 『제3의 길』(한상진·박찬욱 옮김), 생각의 숲.
- 올리히 벡. 1998, 『정치의 재발견』(문순홍 옮김), 거름.
- Achterman, Wouter. 1996, "Sustainability as Associative Democracy," in William Lafferty, James Meadowcroft(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
- Adams, C. J. 1993, *Ecofeminism and the Sacred*, N.Y.: Continuum.
- Barber, Benjamin.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
- Biehl, Janet.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Montreal: Black Rose Books.
- Braidotti, R., Charkiewicz, E., Haeusler, S. and Wieringa, S., *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Zed Book.
- d'Eaubonne, Françoise. 1974, *Feminisme or Death*, Paris: Pierre Horay.
- Diamond, I and Orensten, G. 1990, *Reweaving the World*,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diZerega, Gus. 1996, "Deep Ecology and Liberalism: The Greener Implication of Evolutionary Liberal Theory," *The Review of Politics*, Fall(58-4).
- Dobson, Andrew. 1996,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in William Lafferty, James Meadowcroft(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r.
- Doherty, Brian and Geus, Marius de(ed.). 1996, *Democracy and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Routledge.
- Dryzek, John. 1996a, "Political and Ecological Communication," in Matherws(ed.),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_____. 1996b, "Strategies of Ecological Democracy," in William Lafferty and James Meadowcroft(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r.
- _____. 1997, *Democracy in the Age of Capitalism*, London: Oxford.
- Eckersly, Robyn. 1996a, "Liberal Democracy and the Rights of Nature: The Struggle for Inclusion," in Matherw(ed.),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_____. 1996b, "Greening Liberal Democracy," in B. Doherty and M. de Geus(ed.), *Democracy and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Routledge.
- Escobar, Arturo. 1998, "Whose Knowledge, Whose Natur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Political Ecology of Social Movements,"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 5.
- Geus, Marius de(ed.). 1996, "The Ecological Restructuring of the State," in B. Doherty and M. de Geus(eds.), *Democracy and Green Political Thought*, London: Routledge.
- Habermas, Juergen. 1992, "Further Reflections on the Public Sphere," in Craig Calhoun(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421-461.
- Hardin, Garre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 Heilbroner, Robert. 1974, *An Inquiry into The Human Prospect*, New York: W·W·Norton & Company.
- Held, David(ed.). 1994, *Prospect for Democracy*,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
- Hirst, Paul(1995), *Associative Democracy*, London: Cambridge.
- Kelly, Petra. 1984, *Fighting for Hope*.
- Lafferty, William and Meadowcroft, James(eds.).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Cheltenham: Edward Elgar.
- Mathews, Freya(ed.). 1996,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Mellor, Mary. 1997, *Feminism and Ecology*, London: Routledge.
- Merchant, Carolyn(1980), *The Death of Nature*, San Francisco: Haper and Row.
- _____. 1989, *Ecological Revolution: Nature, Gender, and Science in New England*,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_____. 1995, *Earthcare*, London: Routledge.
- Okin, Susan Moller. 1979, *Women in Western Political Thought*, N.J.: Princeton University Pr.
- Opuls, William. 1974, *Ecology and the Politics of Scarcity*, New York:

Freeman(1992 개정됨).

- Pateman, Carol. 1987, "Feminist Critiques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in Anne Phillips(ed.), *Feminism and Equality*, N.Y.: New York Pr.
- _____. 1988, *The Sexual Contract*,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
- Philips, Anne(ed.). 1987, *Feminism and Equality*, N.Y.: New York University Pr.
- Plumwood, Val. 1990, "Women, Humanity and Nature," in S. Sayers and P. Osborne(eds.), *Socialism, Feminism, and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_____. 1992, "Feminism and Ecofeminism," *The Ecologist*, Vol. 22, No. 1.
- _____. 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 _____. 1994, "The Ecopolitics Debate and the Politics of Nature," in Karen J. Warren(eds.),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
- _____. 1996, "Has Democracy Failed Ecology?," in Matherws(ed.),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Press, Daniel. 1994, *Democratic Dilemmas in the Age of Ecolog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Rae, Eleanor. 1994, *Women, the Mastery of Nature*, N.Y.: Orbis Book.
- Rocheleau, Dianne, Thomas-Slayter, Babara and Wangari, Esther. 1996, *A Feminist Political Ecology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Ruether, Rosemary Radford. 1993, "Ecofeminism: Symbolic and Social Connections of the Oppression of Women and the Domination of Nation," Adams(ed.), *Ecofeminism and the Sacred*, N.Y.: Continuum.
- Schmitter, Phillipe. 1995, "Waves of Democratization," in S. M. Lipset (ed.), *Encyclopedia of Democracy*, Lodon: Routledge.
- Shiva, Vandana. 1986,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Books.
- Shiva, Vandana and Mies, Maria. 1994, *Ecofeminism*, London: Zed Book.
- Slicer, Deborah. 1995, "Is There an Ecofeminism—Deep Ecology 'debate'?" *Environmental Ethics*, Vol. 17(summer).
- Starhawk. 1987, *Truth or Dare*, San Francisco: Harper & Row.
- Young, Iris.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N.J.: Princeton.
- Warren, Karen(ed.). 1994, *Ecological Feminism*, London: Routledge.